

한글

가나가 와를

향 한 시 선

かながわへのまなごし

Kanagawa Prefectural Museum

2024/8.10 SAT >>> 10.6 SUN



“가나가와*”로의 초대

가마쿠라, 하코네 등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일본 국내외에서 방문하는 관광지를 보유한 “가나가와”의 약 170년 전 모습은 어떠했을까?
천주교를 일본에서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세기 중엽부터 에도 막부가 시행한 ‘쇄국’ 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해서는 통상이, 조선과 류큐에는 에도 막부에 사절단 파견이 허용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그 이외의 국가와는 교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1859년에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자유 무역을 시작할 때까지 서양 국가 간 분쟁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하여, 안정적인 사회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 나갔다. 따라서 1859년 무역 시작 전후에 일본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아직 변화되기 전 “가나가와”의 원풍경을 다채로운 글과 함께 그림과 사진 등의 이미지로 기록할 수 있었다.

‘가나가와를 향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전람회는 세계일주 여행이 현실이 되고, 글로벌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19세기 중엽을 무대로 한 것입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기록된 그림과 사진 또는 여행기와 체류기를 바탕으로, 당시 “가나가와”의 원풍경을 비롯하여 서양인의 눈에 일본인이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여주는 전람회입니다.

당시 일본을 찾은 서양인들은 자기 눈에 비일상적으로 비친 “가나가와”의 원풍경 가운데 어떤 점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른 서양 사람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재의 “가나가와”와 전시를 통해 볼 수 있는 19세기의 “가나가와”를 비교해 가며 그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가나가와 현립 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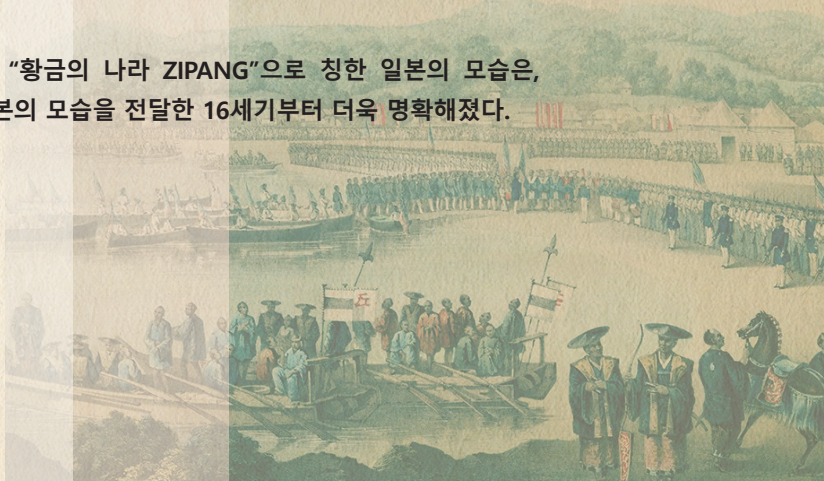
*이 전람회에서는 가나가와현이 성립되기 이전의 에도 시대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가나가와현 지역 및 주변 지역도 포함하여 “가나가와”로 표기한다.

[1] 이문화와의 만남

글로벌화의 시작으로 알려진,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시대를 선도한 스페인,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두 나라는 교역과 천주교 포교를 한데 묶어 움직였으며, 일본의 모습은 선교사를 통해 서양에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들은 주로 규슈 지방에서 교토·오사카까지의 서일본을 무대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건문 역시 서일본이 중심이었고, 일본 열도의 지형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등에는 유럽에서 볼 때 동쪽에 작게 혼슈 지방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서양에서 일본 지도가 제작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 지도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나가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도는 아니었다.

“가나가와”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에도 시대가 된 이후였다. ‘쇄국’ 시대에 서양 나라들 가운데 네덜란드만이 유일하게 나가사키에서 무역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쇼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에도를 방문하는 것이 막부에 의해 허락되었다. 그 사절단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상관장의 담당 의사들이 기록한 체류기나 에도로 향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한, 일본 연구서라고 해도 될 법한 서적 등이 유럽에서 출판되어, 교토·오사카에서 에도 모습까지 서양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마르코 폴로가 “황금의 나라 ZIPANG”으로 칭한 일본의 모습은, 선교사들이 일본의 모습을 전달한 16세기부터 더욱 명확해졌다.





A. 무역과 포교

콜럼버스의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바스쿠 다가마의 1498년 인도 항로 발견으로 상징되듯이,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그때까지 미지의 세계였던 대륙과 지역으로 진출해 나갔다. 글로벌화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당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향신료를 찾아 아시아 지역을 찾게 되었고, 16세기 중엽에는 일본의 규슈 지방에 도착하여 일본과도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남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를 남만 무역이라고 한다. 또한, 무역을 목적으로 한 상인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도 일본으로 들어와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남만인에 의한 무역과 포교 모습이 그려진 것이 《남만 병풍》이다. 현재 90여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린 1587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사카이, 오사카, 쓰루가, 가나자와, 다카오카, 야마가타 등에서 해운업을 하던 상가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값진 물품을 실은 “흑선”이 그려진 《남만 병풍》을 보물선이나 칠복선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사업 번창과 향해 안전을 기원하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만 병풍》에는 무역과 포교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을 향한 외국인의 시선과 외국인들 간의 시선이 서로 교차하는 모습도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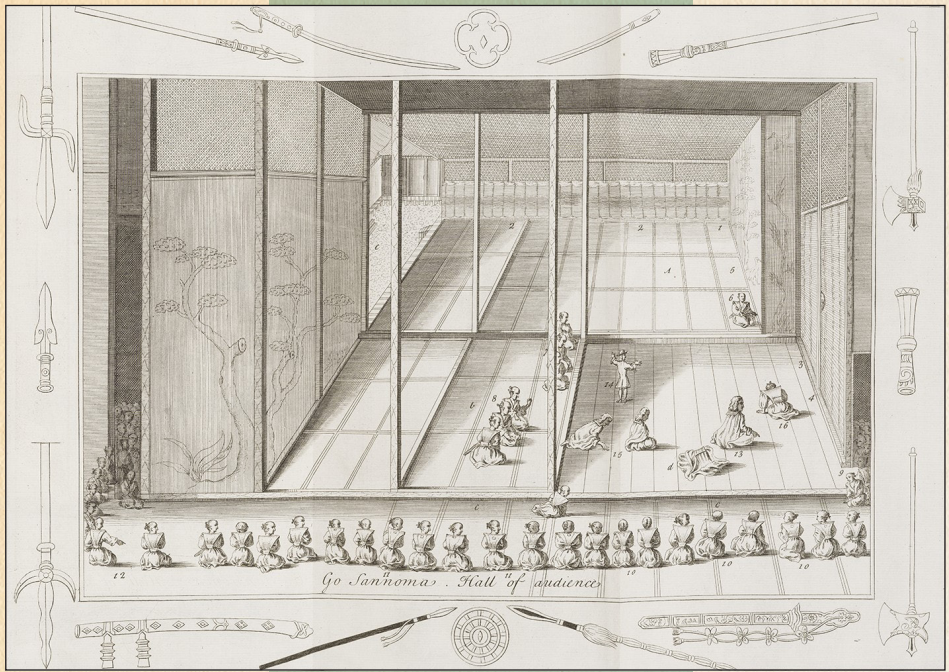
B. 지도에 표시된 NIPPON

독일의 신학자이자 지리학자인 뮌스터가 1550년에 고대 로마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저술한 “지리학”을 바탕으로 일본과 아메리카 대륙이 포함된 지도를 제작했으며, 그 이후 지도 제작이 활발해진 곳은 네덜란드였다.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지도 제작이 전성기를 맞는다. 플랑드르파를 대표하는 메르카토르가 독자적인 도법을 고안해 내었고, 친구인 오르텔리우스가 “세계지도”를 간행하여 호평을 얻었다.

17세기 중엽 이후가 되자, 기욤 드릴의 프랑스가, 그리고 19세기에는 영국이 지도 제작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국가들로, 무역의 번성과 함께 지도 제작도 크게 번성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제작된 많은 세계지도는 한결같이 화면 좌측 하단(서쪽)에 자신들을 배치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을 오른쪽에 그렸다. 하지만 예수회 선교사 코로넬리가 제작한 지도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가져온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했다.





C. 네덜란드 상관원의 일본 정보

이른바 '쇄국' 정책이 시작된 17세기 중엽, 서양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무역이 허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처음에는 히라도에, 1841년부터는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상관(商館)을 두었다. 그곳에 거주했던 상관장을 비롯한 상관원은 유일하게 나가사키 이외의 지역을 살펴볼 수 있었던 에도 참부(쇼군을 만나 감사를 표하고 선물을 바치는 의식)를 기회 삼아 당시 사람들의 풍속과 습관을 기록했으며, 귀국 후 그 내용을 서적으로 정리하여 서양에 일본의 모습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1690년부터 약 2년간 상관 담당 의사로 데지마에서 생활한 앵겔베르트 켐퍼는 1691년과 1692년, 2번의 에도 참부를 경험했으며, 5대 쇼군 쓰나요시도 알현했다. 귀국 후에 그 당시 본 것을 정리한 것이 "회국기관(Amoenitates Exoticae)"과 "일본지"이다. 또한 "일본 풍속 비교"는 1820년부터 9년간 데지마에 머물렀던 피세르가 저술한 것으로, 지볼트가 저술한 "일본"의 저술 내용과 동일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막부 말기에는 양학자인 스키타 세이케이, 미쓰쿠리 겐포 등에 의해 번역되어 일본 국내에 유포되었다.

[Ⅱ] 그림으로 묘사된 개국

서양인들에 의해 “가나가와”가 본격적으로 그림으로 묘사된 것은 1853년에 통상조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페리 제독이 거느린 일본 원정 함대의 수형 화가였던 빌헬름 하이네와 엘리벨렛 브라운 주니어 등에 의해서였다. 그림의 대부분은 원정 함대의 공식 보고서인 “페리 제독 일본 원정기”(이하, “원정기”)에 삽화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구리하마와 요코하마에 최초로 상륙한 역사적 순간은 대형 석판화로 별도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그림은 이후에 일본을 방문한 다른 인물들에 의해 수집되어 일본 체류기나 여행기의 삽화로 재이용되었다. 서양에서 “가나가와”의 이미지가 고정적인 형태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이다.

이 전람회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한가지 또는 일정 분량의 자료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설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독자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보고 해석해 보기를 바란다.



D. “일본 원정 화집”

일본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파견한 페리가 이끄는 일본 원정 함대의 활동은 하이네와 브라운 주니어 등에 의해 스케치되거나 촬영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원정기”에 삽화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활동의 주요 6장면은 대형 석판화로 별도 제작되었다. 이 화집은 6장의 석판화와 함께 제목이 표시된 해설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접이식 커버가 붙어 있다.

각 석판화는 장면을 설명하는 제목과 더불어, 아래에 필기체로 To Commodore M. C. Perry, Officers & men of the Japan Expedition, this Print is respectfully dedicated by their Obt. Servt. Heine & Brown이라는, 제작자인 하이네와 브라운 주니어가 페리를 비롯한 일본 원정 함대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헌정한다는 헌사가 쓰여 있다.

“일본 원정 화집”을 볼 때는 “원정기”에 포함된 삽화도 주목해 보기를 바란다. 삽화에 그려진 인물이 콜라주되어 “일본 원정 화집” 속에도 등장하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기를 바란다.

E. “원정기”

페리 제독이 이끄는 일본 원정 함대의 공식 보고서. 1856년에 인쇄되어 미국 상원·하원에 제출되었다. 페리가 미국 동해안의 노퍽을 출항한 이후 원정 함대의 활동 기록과 함께,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방문한 지역의 풍속 등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부록으로 박물학 관련 기사와 도판 및 다양한 보고서, 천문학 관련 관찰기, 원정 함대의 수로 관련 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어, 탐험기로도 읽을 수 있다.

원정 함대에 참가하지 않은 프랜시스 혹스가 페리를 비롯한 원정 함대원의 일기 등 기록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혹스가 써 내려가는 “이야기 Narrative”로도 볼 수 있다. 기술 내용과 더불어 하이네와 브라운 주니어 등이 제작한 석판화와 목판화가 삽화로 실려 있으며, 기록화로서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F. 상상 속의 구리하마 상륙

하이네와 브라운처럼 실제로 현장을 보거나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많은 석판화가 제작되어 실록의 형태로 서양에 유포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 보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문자 기록 등을 토대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퍼뜨리기도 했다.

이 자료는 “원정기”와 1811년에 나포되어 구금되었던 러시아 군인 골로브닌이 기록한 “유수기(幽囚記)” 등 19세기의 유명한 여행과 탐험 기록 29편을 요약하여 편찬한 일반 교양서이다.

《미국 원정 함대의 일본 상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여기에 그려진 건물과 사람은 일본의 것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그림을 제작한 사람은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그 당시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에 ‘미국 원정 함대의 상륙 모습’을 끼워 넣은 것이다.



[Ⅲ] 세계 여행자들이 본 “가나가와”와 일본

1859년이 되자 이전 해에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맺은 통상조약으로 인해 ‘쇄국’ 체제가 붕괴되고, 5개 무역항 가운데 하나이자 에도(도쿄)와 가까웠던, 당시 역참마을이었던 가나가와의 항구로서 현재의 요코하마항이 개항했다. 이를 계기로 서양에서 상인들과 함께 글로브트로터라 불리는 세계일주를 목적으로 한 많은 여행자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고 대륙 간을 이어주는 대형 증기객선이 취항하자, 세계일주 여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금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인 “가나가와”의 각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일본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표지가 옷으로 장식된 사진앨범과 도자기 등 공예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했다. 제작 자체는 일본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가마쿠라, 에노시마 섬, 하코네 등 그림이나 사진의 배경이 된 장소와 디자인에는 외국인의 기호가 반영되었다. 외국인의 “눈”을 의식하여 제작되었던 것이다. 사진앨범과 도자기는 이른바 “가나가와”를 상징하는 상품으로써 널리 세계로 퍼져 나갔다.



G. 요코하마 주변 외국인 산책 구역도

1859년부터 막부가 서양의 여러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항장에서 육로 10리(약 40km) 사방이 서양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산책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10리 이내에 에도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쪽은 로쿠고가와 강(다마가와 강)까지, 남쪽은 방위상 문제로 미우라 반도의 끝부분이 제외되었다. 경계선은 분홍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후에 영국 공사관 담당 통역인 어니스트 사토와 함께 "중부·북부 일본 안내"를 저술한 영국 해병대의 A. G. S. 호즈가 편집했으며, 1865년부터 1867년에 걸쳐 요코하마에서 실제로 여행한 한 단체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에도시마 섬과 가마쿠라 주변에는 절경 명소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다. 요코하마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 지도를 참고하여 "가나가와"를 둘러보았으며, 여기에 기록된 여행 경로와 경승지가 많이 촬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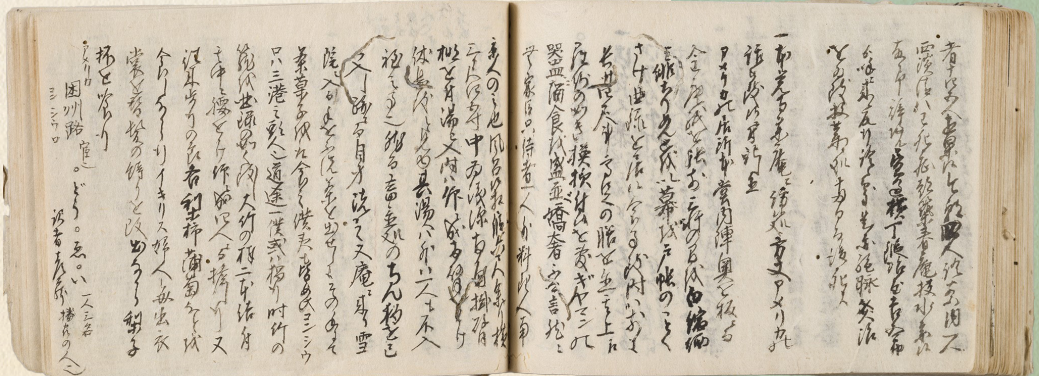
H. 고운테이 사다히데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에 걸쳐 활약한 우키요에(풍속화) 화가. 3대 우타가와 도요쿠니의 제자로, 많은 우키요에를 남겼다. 1859년 가나가와(요코하마) 개항 이후에는 요코하마를 주제로 한 우키요에를 많이 제작했다. 또 이와 별개로, 실제로 요코하마를 방문하여 개항장의 모습을 취재하고 자기 그림을 삽입한 르포르타주인 “요코하마 개항 견문지” Yokohama Port Observatory Journal을 저술했다. 서양인의 관찰 대상이었던 일본인의 시선에 비친 서양인들을 모습에 주목해 보기를 바란다.

I. “가나가와 일기”

무사시국 쓰즈키군 구보무라 출신의 의사 사토 분시가 가나가와 역참마을로 거처를 옮긴 1849년부터 1860년까지 약 12년 동안 매일 쓴 일기를 나중에 정리하여 편집한 것이다.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기로 시작했지만 중간부터 ‘풍설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분시의 폭넓은 교우 관계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나가와(요코하마)가 개항하여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자, 일기에 그들의 활동을 기록하게 된다. 요코하마 아오키바시의 혼가쿠지 절을 미국 총영사관으로 사용한 총영사 타운젠드 해리스의 동향과 외국인 배척 사건의 피해 상황 등이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J. 러드퍼드 올콕

1809년 런던에서 태어난 올콕은 원래 외과의사였지만 류머티즘에 걸려 의사의 길을 포기했다. 이후에 외무성에 들어가 중국에서 상하이 영사, 광둥 영사 등 주요 개항장의 영사를 역임했으며, 1859년 가나가와(요코하마) 개항과 함께 영국 초대 주일본 총영사로 부임했다. 당시 대부분의 서양인은 스스로를 문명인이라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생각하는 문명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콕은 일본이 문명화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영국의 주간 삽화 신문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지의 특파원이었던 화가 찰스 워그먼과 함께 각지를 여행했으며, 후지산 등산도 했다.

K. 에메 움베르 드로

1819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스위스 시계조합회장, 국회의원을 역임한 움베르는 특명전권공사로 일본을 방문하여 1864년에 일본-스위스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머물렀던 약 10개월 동안 펠리체 베아토 등이 남긴 사진, 회화, 목판화 등을 수집했다. "막부 말기 일본 그림"의 삽화에는 이처럼 이미 만들어진 일본의 이미지가 재이용되었다.

L. 루이스 M 윌리엄

전년도에 발생한 산리쿠 대지진의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1897년 8월, 캐나다 태평양 철도가 운항하는 캐나다 밴쿠버발 대형 객선을 타고 요코하마에 도착한 미국인 여성 루이스 M 윌리엄은 당시 부유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세계일주 도종 약 6개월간 일본에 체류했던 세계여행가 중 한 사람이었다.



먼저 요코하마 그랜드 호텔에 숙소를 정한 다음, 현재의 여권에 해당하는 '외국인 내지 여행 면장'이 가나가와현에서 발급되자, 일본어 통역 겸 안내인과 함께 산책 구역을 벗어나 닛코와 하코네, 도쿄, 이세, 교토, 고베,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을 방문했으며, 도자기와 시바야마 칠기로 표지가 장식된 사진앨범 등 공예품을 구매했다. 체류 중에 방문한 가게의 카드를 비롯해, 사진앨범과 도검 등을 산 영수증을 소중하게 보관했으며, 요코하마에서는 누시마 상점과 마쓰이시야 등 미술상을 방문했다. 윌리엄의 눈에 요코하마는 미술공예품이 넘치는 도시로 비치지 않았을까?

M. 레이 부인

영국인 여성 A.M. 레이의 여행기. 1891년부터 1892년에 걸친 세계일주 여행 당시에 보고 들은 것을 귀국 후 정리한 것이다. 12월에 일본을 여행하던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본인이 그린 스케치와 구매한 사진,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화가 찰스 워그먼이 스케치한 갓난아기를 업은 여성의 그림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일상적인 서민 모습에도 시선을 향하고 있다.

N. 명소

가나가와(요코하마) 개항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일을 위해 온 상인이든 관광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이든 모두 각지의 명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그들이 방문한 장소는 외국인을 위해 새롭게 관광지로 조성된 곳은 아니었다. 《요코하마 주변 외국인 산책 구역도》에도 표시되어 있는, 외국인이 방문했던 에노시마 섬, 오야마, 가마쿠라, 하코네 등은 이미 에도 시대부터 신앙을 목적으로 또는 관광과 유람을 위한 장소로서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곳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장소였던 것이다.



O. 요코하마 사진

요코하마를 비롯한 일본 각지의 풍경과 일본인들의 풍속 및 습관을 촬영하고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 사진들은 대부분이 요코하마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사진'이라 불린다. 요코하마 노게의 벚꽃, 에노시마 섬, 가마쿠라 대불, 쓰루가오카 하치만구 신사, 하코네 등 당시 외국인이 방문했던 장소들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촬영되어 있다. 많은 외국인이 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코하마 주변에서는 영국인 사진가 펠리체 베아토에 의해 처음 촬영되었고, 1877년에 베아토 사진관이 폐업하자 그의 조수였던 구사카베 긴베에가 이를 이어받아 나전세공을 한 사진앨범을 최초로 제작했다. 1890년 무렵부터 KINBEI라는 상호가 서양에 널리 알려졌으며, 1904년에 열린 세인트루이스 세계박람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1885년에 일본인 사진작가 다마무라 고자부로와 손을 잡은 이탈리아인 사진작가 파사리는 요코하마에 있었던 스틸프리드 앤드 안데르센 스튜디오를 매입하여 상업 사진 분야에도 진출했다.

그들이 제작하고 판매한 사진앨범 속에는 일본인이 봤을 때 일상적인 풍경과 풍속이 담겨 있을 뿐이었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비일상적이고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P. 요코하마야키 도자기

요코하마에서는 수출용 도자기 제작이 왕성했다. 효율적으로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세토나 아리타 등의 도자기 생산지에서 무지 상태의 흰 자기를 사들여, 외국인의 기호에 맞게 채색한 후 소규모 가마에서 소성하여 완성하는 생산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도자기는 '요코하마 에쓰케'라고 불렸다. 한편, 미야가와 고잔이 개업한 마쿠즈 가마에서는 소지 형성에서 소성까지 모든 공정이 이루어졌다.



JAPAN
CULTURAL
EXPO 2025



文化庁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神奈川県立歴史博物館

Kanagawa Prefectural Museum of Cultural History

©Kanagawa Prefectural Museum of Cultural History 2024